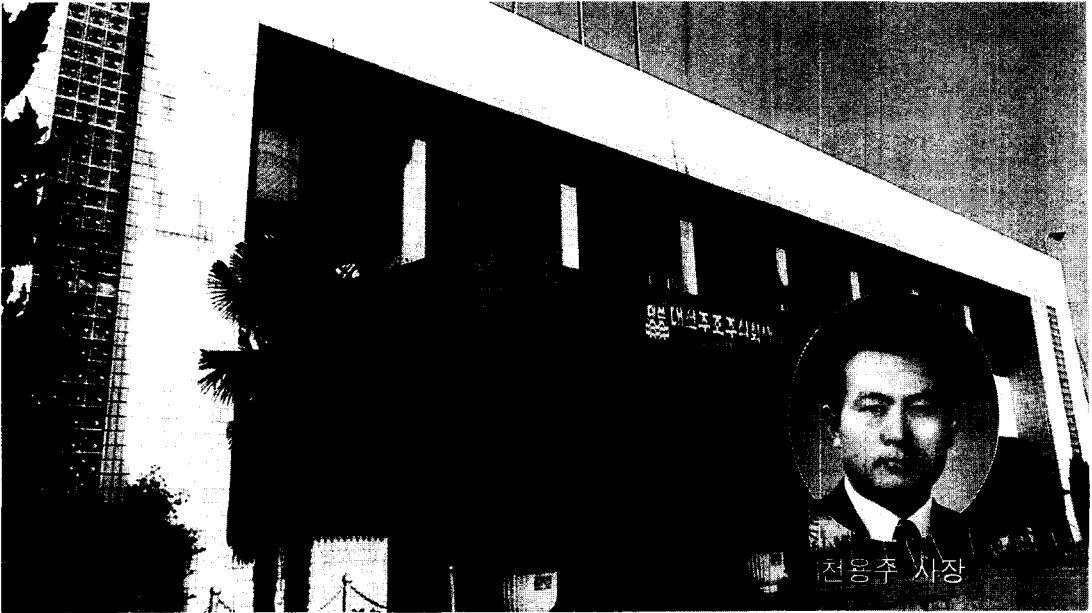


대선주조(주)



부산의 대표적인 향토기업으로서 부산시민의 술한 애환을 달래며 67년간의 전통을 계승해 온 대선주조주식회사(대표이사 천용주)를 찾아가 보았다.

1930년 7월 25일 일본인 자본가가 부산시 범일동 401번지 자리에 자본금 1百萬圓으로 대선양조주식회사를 설립하게 된 것이 대선주조의 태동이다. 주류와 공업약품을 주로 생산한 대선양조의 연간 소주 생산량은 3만섬, 종업원수는 60여명으로 당시 주류업계에선 가장 큰 규모였다.

또한 대선양조는 최신식 설비를 갖추고 '다이아몬드 소주', '신세계 청주' 등을 생산하여 국내는 물론 일본까지 판로를 개척해 국내 굴지의 양조업체로 성장하였다.

당시 소주의 제조방법은 지금의 회석식소주와는 달리 가마솥에 끓인 증류식소주로 도수가 30도가 넘는 독한 술이었다. 대선양조(주)는 해방 후 大鮮釀酵工業(株)로 바뀌었고 박선기 사장이 취임하면서 부산의 대표적인 기업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동사는 1965년 회석식소주의 제조면허를 취득하였고 1968년에는 대선주조(주)로 회사명을 변경하였다.

1970년대에 소주업계의 난립으로 과당경쟁이 야기되어 이를 방지하고 주류 유통질서의 정립, 주세보전, 주질향상을 목적으로 정부가 소주업계의 통폐합을 추진한 결과 전국에 10개 소주업체가 남게되었는데 그중 하나로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친 부산지방의 대표업체인 대선주조는 과감한 시설투자와 기술개발에 주력함으로써 경쟁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였으며, 1974년에 현재 위치인 동래구 사직동 154-2번지(대지 4천평 건평 1천2백80평 규모)로 신축 이전하고 최신 자동설비를 도입,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여 이때부터 2홉들이(360ml)소주의 상표를 "대선"으로 바꾸어 본격적인 양산체제에 들어갔다. 그러나 경영개선에도 불구하고 크게

신장하지 못하다가 1976년도에 정부의 지방주 육성방침과 과당경쟁 방지 정책에 따라 “지방주 50% 의무판매제도”와 주정 배정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이를 계기로 동사는 경영이 호전되었고 나아가서는 고급화된 소비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설비의 완전 자동화, 끊임없는 주질 향상과 신제품 개발에 주력함으로써 부산지역에서 60% 이상의 시장을 점유하게 되었다. 이러한 성장에 힘입어 여자 핸드볼팀을 창단하였는가 하면 부산지역의 문화창달을 위해 목요학술회, 부산민속예술보존회등 각종 문화단체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고 한다.

한편 1986년 아시안게임과 1988년 서울올림픽을 겨냥한 주류시장의 변화에 대비해 와인개발에 적극 나서 “그랑주아”라는 프랑스 정통의 스파클링 와인(샴페인)을 선보이게 되었다. 당시 국내에서 가장 우수한 품질의 와인인 그랑주아는 1991년 제주도에서의 한·소 정상회담때 양국정상의 축하용으로 사용되어 세간에 화제가 되기도 했다.

이러한 성장가도속에 회사 내적으로는 종업원 복지증진의 일환으로 매월 첫째, 셋째 토요일에

휴무제를 실시하여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근무제도를 도입했다.

그러나 세계화에 따른 정부의 주류수입 자유화, 자도주 50% 의무판매제도 폐지등 주류산업의 개방화로 무한경쟁의 시련을 겪게됨에 따라 그에 따른 대처를 위해 선진기술 축적은 물론 감량경영속에서 조직을 소수 정예화 시킴과 아울러 생산성 향상운동을 적극 추진했다. 그러나 동사의 이같은 자구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입주류의 개방 물결속에 와인의 매출이 급격히 감소하여 급기야 1992년도에 그동안 심혈을 기울여 개발한 포도주 공장과 경남 함안군에 소재한 포도단지를 매각하기에 이르렀으며, 결국 세계화와 개방화라는 거센 시대적 조류에 한차례 시련을 겪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위기를 기회로 삼아 거듭 태어난다는 의지로 마케팅활동을 더욱 강화하여 우수한 품질과 부가가치가 높은 고급소주를 잇달아 선보여 경쟁력을 회복하기 시작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안정성을 바탕으로 새로운 제품개발에 박차를 가하여 2년여에 걸친 연구노력과 지속적인 소비자 반응조사를 기초로하여 알콜도수에



[제품사진]

제 품 명	용 량	용기	알콜도수
시 원	360 ml		23%
선	375 ml	관광용	25%
골 드	360 ml		25%
암행어사	360 ml		23%
시 원	360 ml	PET	23%
대 선	1. 8 l	"	25%
	1. 8 l	"	30%
	0.64 l	"	25%
장생오가피주	180 ml		25%
"	360 ml		25%
"	180 ml		35%
"	360 ml		35%
"	700 ml	도자기	35%

[제품현황]

대한 기존의 관념을 탈피함은 물론 그에 걸맞은 상표 디자인으로 소주시장에서 획기적인 바람을 불러 일으킨 새로운 맛의 “시원소주”가 1996년도에 탄생되었다.

시원은 영어 CLEAN NO.1의 첫 음절을 인용한 것으로 깨끗한 소주라는 의미를 강조한 것이다. 이러한 의미를 뒷받침 하기 위해 부산의 명산인 금정산 지하 청암수맥에서 뽑아 올린 청정수를 사용하였으며, 또한 술을 마시고 난 이후의 가장 골칫거리인 숙취를 해소시키기 위해 업계 최초로 아스파라긴을 첨가시켰고, 그리고 벌꿀 올리고당의 함유로 자연의 입맛을 찾아 첫 느낌은 부드럽고 뒤끝은 깨끗하게 하여 소주 초보자에서부터 애주가에 이르기까지 다양해진 고객의 입맛에 맞도록 소주의 인식을 바꾼 깨끗한 소주를 내놓았던 것이다.

시원소주는 대선주조 창사이래로 상표이름에 걸맞게 월 1천5백만병이라는 경이적인 판매를 기록하여 금년도 소주부문 매출액 목표도 전년도 보다 30%이상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 한다. 이러한 신장세와 더불어 금년에 향도 부산에서 개최된 '97 제2회 부산동아시아경기대회에 공식 지정소주로 협찬을 하여 대외적으로 공기업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면서 기업 이미지를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를 만들기도 하였다.

내부적으로는 조직력 강화는 물론 지속적인 전사적 판촉활동을 통하여 응집력을 배양하면서 불확실한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결코 내일이 오늘 같을 수 없다는 배수진을 치고 꾸준한 자

기개발에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한다.

또한 시원소주가 부산시장에서 선호도가 가장 높은 소주로 인식되어 시장을 석권하고 있지만 과거의 그 어려웠던 환경을 생각한다면 현실에 만족하고 안이하게 대처해 나갈 수 없다는 공감대 아래, 시대적 변화는 물론 소비자의 변화를 항상 주시하며 정보화시대에 대응해 나가고 있다.

“이제 새로운 장을 열어가고 있는 대선주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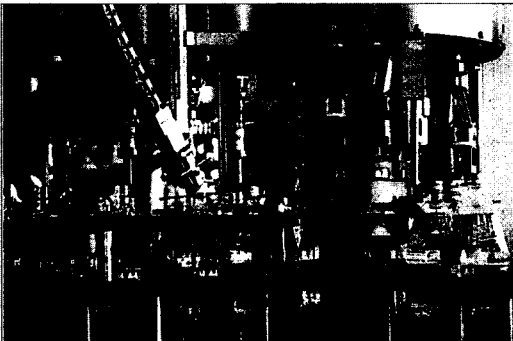
치열한 시장경쟁과 다양화 되어가고 있는 고객의 욕구 등 시장환경 변화에 능동적인 대처를 위해 기존의 경영틀에서 과감하게 벗어나 제2의 창업을 이룩한다는 의지로 공격적인 경영을 펼쳐 나가고 있다.

그리고 주류부문에만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사업영역의 확대를 위해 항공운수업 및 항공정비업, 레저용품, 유통업, 육류가공 및 유통업, 오락관련사업, 그리고 영남권 무선호출산업에도 컨소시엄으로 참가하여 사업 다각화를 꾀하고 있다.

오늘날 어떠한 제품이든간에 품질만으로 경쟁하던 시대는 지났다.

정보화 시대에 있어서 제품의 기술수준은 평준화 된 만큼, 그에 따른 제품의 차별화는 그 제품에 체질화되어 있는 “Service”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미래의 소비자는 유형적 물질 충족보다는 무형의 심적 충족을 중요시 하는, 즉 감성(感性)의 소비자이다.



[공장내부]



[연구실 전경]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무형의 심적충족을 증요시하는 소비자에 대해 첫째 직원의 예의바름과, 둘째 고객의 문제를 언제나 신속 정확하게 해결하고, 셋째 고객에게 약속한 서비스에 대해서는 철저히 이행할 것을 모토로 삼고 있다는

대선주조는 고객 만족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확신할 수 있었으며 또한 끊임 없는 신제품 개발의 노력을 위해 不撤晝夜 맘을 홀리고 있음을 느낄수 있었다.

회사 현황 및 연혁

현		황	
회 사 명	대선주조주식회사		
대 표 자 명	천 용 주		
주 소	본 사	부산시 동래구 사직동 154-2	TEL : 051-503-5051
	김해공장	경남 김해군 진례면 청천리 855-2	TEL : 0525-45-5566
창 립 기 념 일	1930년 7월 25일	자본금	110억원
종 업 원 수	232명		
면 허 종 목	회석식소주		
사 훈	창의적 계획, 과학적 확인, 적극적 실천		
연		혁	
년 월 일	내 용		
1930. 7	대선양조(주) 설립		
1945. 3	대선발효공업(주)로 사명변경		
1965. 6	회석식소주 제조면허 취득		
1967. 5	본사 및 공장이전 부산시 동구 범일동 817-4		
1968. 5	대선주조(주)로 사명변경		
1974. 6	본사 및 공장 신축이전 부산시 동래구 사직동 154-2		
1981. 11	김해 오가피주 공장 준공		
1988. 12	기업공개 증권거래소 상장		
1995. 6	자본금 110억원으로 증자		
1996. 3	대표이사 천용주 취임		
1996. 6	시원(C1)소주 개발시판		